

寄附金入學은 不當하다

車 京 守

(서울大 社會教育科)

寄附金入學의 性格

최근 사립 대학의 기부금 입학 허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아직 이 제도의 뚜렷한 윤곽을 알 수가 없지만, 대학 학부모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고 시험 성적이 부족한 학생을 입학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대학이 전인교육을 잘 하지 못한다거나 시설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돈을 받고 학생을 입학시켰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돈뭉치를 가지고 와서 대학에 입학시켜 달라고 교수에게 부탁하는 사람도 없어졌다. 적어도 대학 입학은 돈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인들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의 학교를 돌이켜 보면 그렇

지는 않다. 보결입학은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막론하고 상식처럼 되어 있었다. 1950년대에 신설 학교인 어떤 사범학교에 입학했던 한 교수는 입학 시험의 면접에서 겪은 오래전의 일을 지금도 못마땅하게 기억하고 있다. 돈이 부족했던 그 학교는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의 면접시험에서 납부금 이외에 기부금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를 써넣게 했던 것이다. 얼마 이상의 기부금을 써내야 입학할 시켜 준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많은 학부모들이 경제적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기부금을 써내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것이 주는 물질적·정신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 학교가 기부금을 입학과 직접적으로 관련시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입학할 돈과 연결시키는 것 같아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기부금 입학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돈을 받고 성적이 부족한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권력의 역학관계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재정난 해결을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학생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그것이 주는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최소로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기부금 입학의 혜택을 학비가 부족한 다수의 학생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지난날의 예에서처럼 편입생이 준 돈으로 교직원들의 보너스 봉투가 두꺼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부금 입학의 부정적인 면을 줄이고 긍정적인 면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성적이 부족한 학생을 입학시켜 준다는 특징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기

부금 입학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고등학교나 대학에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그것은 근대교육의 기회균등 원리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며, 교육의 본질을 파괴하고 대학의 신뢰를 손상시키며, 건전한 국민의 가치관과 분위기를 저해할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아래에서 간략하게 서술해 보고자 한다.

近代教育의 機會均等 理念 違背

기부금 입학의 허용은 근대교육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요, 원리라고 주장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믿어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2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각 시대에 따라 다르고, 또 국가에 따라 다르긴 하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학자들이 끈질기게 주장해 오고 있는 것은 능력은 학생 자신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습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 도시나 농촌과 같은 거주지의 종류, 또는 남녀의 성별과 같은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더 쉽게 생각하면, 돈이 없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더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

이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학생의 학습능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한 이념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대사회가 시작된 이후 학교교육 발전과정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여기에서 근대교육의 이념과 발전 추세에 관하여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대적인 대학이 처음 설립된 것은 11세기이며, 그 후 문예부흥 시기에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교육 기관으로서의 중등학교가 발전하였다.

일반 대중들의 자녀들이 체계적인 학교교육을 받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서도 한참 뒤의 일이다. 19세기에 의무교육이 보편화되기까지 학교는 특수한 신분층을 가졌던 사람에게만 허용되거나 아니면 개인의 완전한 자유에 맡겨져 있었다. 개인의 자유에 맡겨진 경우에도 고전적인 외국어의 이수, 학교에 드는 비용, 지리적 접근 등으로 실제적으로는 대중들에게 개방되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학교가 사회적인 위신과 지위의 분배, 취업, 여러 가지 특권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학교는 사회적 지위와 위신을 능력 있는 사람에게 분배해 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요청

되는 것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이 학교교육에 끼치는 영향을 되도록 줄이고, 학생의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학교가 사회적 지위나 특권 등 이해 관계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이상, 학교에 대한 이상과 같은 요구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당연한 요청이었다. 근대국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 또는 지리적인 요인이 학교교육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왔다. 기숙사를 설치하고 의무교육 과정을 무상으로 함은 물론 교과서와 문방구를 공급하고 급식을 하며, 장학금을 지급하고, 시험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과 같은 것은 모두 이러한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29조 1항에는 이러한 근대교육의 이념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믿어진다. 그런데, 만약 대학에서 기부금을 받고 실력이 없는 학생을 입학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근대교육의 이념과 발전 추세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며, 헌법의 기본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教育의 本質 破壞

기부금 입학은 교육의 본질을 파괴하는 것이다. 교육이 무엇인가를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분명해진다. 어떠한

형태의 교육이든 교육은 현재의 상태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완전한 상태로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인 것이다. 만약 현재의 상태가 만족스럽게 생각되면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현재가 불만족스럽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좀더 바람직한 상태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면 교육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노력해도 아무 소용도 없다면 헛수고를 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좀더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를 성취하고 싶은 욕구와 그러한 바람직한 상태가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실시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이상으로 제시되는 것으로는 정직, 성실성, 정의, 평등과 같은 추상적 가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치들은 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추상적인 형태로 존재하면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 이념들이다. 그것은 교육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이다.

우리는 남을 속이기 위한 교육이나 사회를 불평등하게 하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교육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우리는 비도덕적

인 교육을 교육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교육은 언제나 본질적으로 가치 지향적이어야 하고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것은 비교육적인 것이다.

교육의 본질에서 또 하나 지적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반드시 학습자 자신이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은 인격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금전적 거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가에 내는 세금은 납세자가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해도 좋다. 그러나 교육은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가 없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학습자 자신이 교육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부금 입학은 학습자의 노력의 결과로 입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교육의 가치성, 도덕성, 성실성, 참여성과 같은 교육의 본질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大學과 學問의 信賴 損傷

기부금 입학은 학문연구의 본질을 왜곡시키어 대학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를 손상시킨다. 우리는 위에서 교육의 본질에 끼치는 기부금 입학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같은 논리로 우리는 학문연구와 대학의 사회적 신뢰가 어디서 오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기부금 입학과 결코 양립할 수 없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학문연구의 본질

은 보편적 진리를 찾는 데 있으며, 진리나 아니나 하는 것은 매우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된다. 언어의 약속인 논리적 기준에 의하거나 또는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 참된 것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은 그러한 예이다. 그러한 기준 이외에 어느 누구도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선언할 수가 없는 것이 학문의 세계이다.

학문연구와 마찬가지로 대학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기본 원리는 철저한 업적주의와 보편적 가치이다. 대학은 지도자를 양성하여 사회에 배출한다. 사회는 대학의 업적주의와 보편적 가치가 지배하는 대학의 문화를 신뢰하기 때문에 대학의 졸업생을 신뢰한다. 대학을 대학답게 하는 것 또는 대학이 오늘날과 같이 양심과 진리의 보루로서 사회적 신뢰를 얻게 된 것은 바로 대학이 업적주의와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할 때에 얼음이 예쁘고 밭다거나 돈이 많고 적다거나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은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런데, 기부금 입학이 허용되면 대학이 지금까지 집착해 온 대학의 생명이요 지조라고 할 수 있는 이상과 같은 업적주의와 보편성을 스스로 짓밟는 것이 되는 것이다. 많은 돈을 내고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 것도 대학이 업적주의와 보편성의 원리를 지켜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돈을 주고 입학을 삼으로써 스스로 업적주의

와 보편적 가치를 유린한다는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해 보라. 많은 사람이 돈을 내고 입학을 산다면 대학의 값은 폭락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던 돈을 내고 입학을 사겠다고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대학이 이러한 유혹을 물리칠 때만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회문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지위 상실의 악순환' 가설과 '지위 향상의 가속화' 가설이라는 것이 있다. 돈을 받고 지조를 팔면 값이 폭락하게 되고, 값이 폭락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양심과 지조는 더 헐값에 팔리게 되고 마지막에는 돈을 내고 살 사람도 없어진다는 것이 지위 상실의 악순환 가설이다. 비행과 범죄를 설명하는 이론의 하나다.

이에 비하여 처음부터 양심과 지조를 지키면 돈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고 유혹을 물리치면 값은 더 올라가고 지위는 더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 지위 상승의 가속화 가설이다. 원리와 원칙에 집착할 때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기부금 입학은 대학의 신뢰를 손상시킴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지위를 상실시키는 악순환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물론 기부금 입학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상

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한 번이건 열 번이건 원리와 가치가 유린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教育은 正道를 가야 한다

기부금 입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잘못 사용된 수단인 것이다. 기부금 입학이 존엄을 아껴서 공부하는 70 만의 수험생들과 1천 만의 학생들과 전체 국민에게 끼치는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기부금 입학의 목적이 제정난을 극복하고 그 혜택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잘못된 수단이라고 하는 점이다. 교육은 언제나 正道를 가야 하고 그릇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가치지향적인 것이다.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그릇된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면 교육의 효과가 날 수가 없다.

교육은 신뢰와 존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뢰와 존경은 학교와 교사가 하는 일이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것을 믿고 본받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인 것이다. 수백 만의 학생들이 이 순간에도 고통을 참아 가면서 공

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대학의 업적주의와 보편주의를 믿기 때문인 것이다. 일점이라도 점수를 더 받기 위하여 그들은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돈을 내고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들이 그렇게 애쓰고 공부할 생각이 날 것인가. 또 돈을 내지 못하는 많은 학부형들은 얼마나 좌절하고 고통스러워 할 것인가. 기부금 입학은 국민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수험생의 사기를 저하시켜 사회정의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사회정의의 문제는 인간교육에 대한 비판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의 기부금 입학은 재정난의 극복, 장학금의 확대 등 몇 가지 결과가 기대되지만, 대학의 생명인 업적주의와 보편성을 짓밟는 것이며, 교육의 본질과 대학의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고 수험생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더 심각하게 제기할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근대교육의 가장 중요한 이념인 교육의 기회균등 이념에 위반되는 것이며, 사회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교육기관은 항상 정도를 밝아야 하고 특히 대학의 생명은 정신적 가치의 창조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